

촉천무후의 남성 편력에 관한 문학적 각색 양상 연구: 동아시아 여성군주론의 관점에서*

신정수**

<목 차>

1. 들어가며: 성과 권력
2. 거울에 꽃을 피우게 한 고사: 권력자에서 음녀로 변화
3. 남근으로 무후를 길들이기: 욕망과 계몽의 변증
4. 여근으로 남자를 길들이기: 섣덕여왕의 여근곡 고사와 비교
5. 결론을 대신하여: 7세기 동아시아의 여성 군주

1. 들어가며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 군주는 음양의 질서를 파괴한 불미스러운 존재였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가들은 則天武后(624/627-705; 재위 690-705)의 행적을 처음부터 온갖 방식으로 왜곡하고 부정하였으며 파편적으로 기술하였다.¹⁾ 이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2014S1A5B5A07040848).

** 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한국학부 고전번역학 조교수

1) 중국에는 촉천무후 외에 前漢의 呂太后(기원전241-180), 청말의 西太后(1835-1908) 등 많은 여성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황후(empress consort)였다는 점에서 여성 황제(empress regnant)였던 촉천무후와 다르다. 트위철티(Denis Twitchett, 1979, 3: 244-5)에 따르면, 촉천무후에 대한 기술은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이상하게도 단편적이고 불완전하였다. "Everything concerning this remarkable woman is surrounded by doubts, for she stood for everything to which the ideas of the Confucian scholar-official class were opposed—feminine interference in public affairs, government by arbitrary whim, the deliberate exploitation of factionalism, ruthless personal vendettas, political manipulation in complete disregard of ethics

러한 편파적 시각과 자의적 묘사는 문학 작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특히 무후의 남성관계를 소재로 하는 작품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에서 무후의 사생활이 왜곡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야를 넓혀 동시대 한국과 일본의 여성군주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성과 관련된 한중일 삼국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비교하고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장에서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겨울철에 꽃이 피는 고사가 각색되면서 무후가 음탕한 여자로 변하는 과정을 분석한다.²⁾ 이 고사를 처음 수록한 《事物紀原》에서는 무후가 겨울에 강제로 꽃을 피우게 했는데 모란이 제 때에 꽃을 피우지 못하여 유배시켰다고 기록하였다. 작품은 무후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라기보다 무후의 권력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우화에 가깝다. 그러나 송대 필기 《唐詩紀事》와 필자 미상의 명대 소설 《如意君傳》에서 해당 부분을 읽어보면 축천무후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음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무후가 권력자에서 淫女로 변해가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남성 문인의 서술 방식과 창작 의도를 비판한다.

3장에서는 남근에 집착하는 무후를 다룬 명청 시대의 소설 두 작품을 분석한다. 관심사는 무후의 남성 편력이 실제로 어땠는가가 아니라,³⁾ 성적 욕망을 이용하여 무후를 교화시키겠다는 남성 문인의 사고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앞 장에서 논의한 《如意君傳》과 袁枚(1716-1797)의 《子不語》에 수록되어 있는 <控鶴監秘記二則>에서 여성혐오증과 여성에 대한 욕망이 이중적으로

and principles. From the very first the historical record of her reign has been hostile, biased, and curiously fragmentary and incomplete."

- 2) 당대의 경우는 도란(Rebecca Esther Doran, 2016)이 이미 張鷟(약660-약740)의 《朝野僉載》, 劉餗(742-755 활동)의 《隋唐嘉話》, 劉肅(806-820 활동)의 《大唐新語》, 李潛(713-727 활동)의 《松窓雜錄》, 封演(756년 진사)의 《封氏聞見記》, 鄭縈의 《開天傳信記》 등 당대 필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 3)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였다. 도야마 군치(外山軍治, 2006, 249-250)는 이를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고종이 죽은 이후에 무후의 남성 편력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남성 작가들은 일차적으로 욕망의 대상에서 지배자로 돌변한 여성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의 붕괴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으로 볼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시야를 넓혀서 촉천무후를 善德女王(재위 632-647)과 推古皇帝(554-628; 재위 592-628)와 비교한다. 한중일 여성 군주들이 모두 7세기 전후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⁴⁾ 촉천무후의 집권은 당시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⁵⁾ 그러나 세 여성 군주를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하지 않고 무후를 연구의 중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촉천무후는 낮은 신분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왕조까지 개창하였다는 점에서 왕족 출신으로서 기존의 왕조를 계승한 한국과 일본의 여성 군주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또 중국, 한국과 달리 일본의 여성 군주는 관련 텍스트가 매우 소략하여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촉천무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여성 군주를 살펴보면서 ‘하늘—군주—남성’이라는 유교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세 여성 군주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양상을 밝히고 그 원인을 논의할 것이다.

- 4) 이밖에도 당시 동아시아에 많은 여성 권력자들이 활약하였다. 중국의 경우 무후와 高宗(재위 649-683)의 딸 太平公主(665-713), 中宗(재위 705-710)의 아내 韋皇后(710 몰), 중종과 위황후가 총애한 安樂公主(684?-710)가 권력을 행사하였다. 신라에서는 眞德女王(재위 647-654)이 있었고 神穆太后(약 655-700) 역시 아들 孝昭王(687-702)을 섭정하면서 왕에 버금하는 권력을 행사하였다. 여성 권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본의 경우 코요쿠皇極/사이마이齊明(재위 642-645/655-661), 지토持統(재위 686-697), 겐메이元明(재위 707-715), 겐쇼元正(재위 715-724), 코겐孝謙/쇼토쿠稱德皇帝(재위 749-758/재위 764-770) 등 모두 八代六人の 여성 군주가 있었다. 여덟 명의 일본 여제에 대해서는 新人物往來社 編, 《女帝の日本古代史 六人八代の女帝時代の謎》(東京: 新人物往來社, 2010) 볼 것. 이 시기 여성군주들의 등장과 활약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에서 볼 때에도 커다란 이변이다. 일본의 경우 총 여덟 명의 여성 황제가 있었는데 여섯 명이 이 시기에 등장하였으며 한국 역시 세 명의 여왕 중 두 명이 7세기에 활동하였다. 중국에서도 이 시기의 등장한 촉천무후가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유교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하면서 가부장적 사회가 공고해지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여성 군주들의 활약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 5) 현재 세 여성 군주에 대한 개별 연구는 이미 상당히 깊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동아시아 전체 맥락에서 세 여성 통치자를 조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당나라와 당시 주변국의 여성군주들을 모계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Jennifer W. Jay, 1996, 220-9)이 있는 정도이다.

2. 겨울에 꽃을 피우게 한 고사: 권력자에서 음녀로 변화

측천무후는 사천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武士護(577-635)의 차녀로 태어났다.⁶⁾ 15세에 才人이라는 낮은 신분의 후궁으로 입궐하였을 때 태종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들 고종(재위 649-683)의 눈에 띄이면서 자신의 입지를 빠르게 구축해 나간다. 655년 황후가 되면서 병약한 남편을 대신하여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고종이 죽은 뒤에는 친아들 睿宗(재위 684-689)을 섭정하면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690년 마침내 고대의 이상적인 왕조를 본떠서 周나라를 세우고 낙양으로 천도하여 15년간 여성 군주로 군림하였다. 이후 당을 부흥시키려는 張柬之(625-706)의 압력으로 무후는 자신의 일곱 번째 아들 李顯(중종, 684, 재위 705-710)에게 제위를 넘겨주고 곧 사망한다.⁷⁾ 현대 학자들은 正史에서 보이는 편향적인 기술을 비판하고 무후의 통치가 太宗의 貞觀之治(627-649)와 玄宗의 開元之治(713-741)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⁸⁾

측천무후가 음녀로 변해가는 과정은 겨울철에 꽃을 피우게 하는 고사의 변천에서 잘 나타난다. 관련 고사는 11세기 유서인 《事物紀原》에 처음 나타난다.

6) 《구당서》, 권6 115쪽. 무후의 부친 무사확은 수 양제(재위 605-618) 말기 산서성 태원 지역의 鷹揚縣에서 陸正이라는 군관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당 고조(재위 618-626)가 된 李淵(566-635)의 역성혁명을 도와주면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후 工部尙書, 호북의 형주 도독, 태종 시절 應國公에까지 봉해진다. 무사확은 처음 相里 집안과 결혼해서 武元慶, 武元爽 두 아들을 두었다가 고조의 소개로 수 황실의 친척인 양씨에게 다시 결혼을 해서 세 딸을 낳았는데 무후는 이 중 차녀이다.

7) 무후의 전기는 《구당서》 권6 115-34쪽; 《신당서》 권4 81-105쪽; 권76 3474-84쪽을 참고할 것.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서를 볼 것.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앞의 책: 242-332; Kang-i Sun Chang and Haun Saussy ed., *Women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 Anthology of Poetry and Critic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46-7.

무후가 겨울철에 후원을 거닐러 나갔다. 모든 꽃들이 [무후를 위하여] 피었는데 모란이 혼자 더디어서 무후가 낙양으로 쫓아 버렸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란을 말할 때 낙양의 모란을 최고라고 한다.⁹⁾

武后冬月游后苑，花俱開而牡丹獨遲，遂貶于洛陽，故今言牡丹者以西洛爲冠首。

겨울에 꽃이 피우라는 명령을 내린 무후는 자연 법칙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야기의 근저에 무후가 군주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해괴망측한 일이라는 포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사 자체는 무후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일화일 뿐이다.

이 간략한 고사는 후대로 오면서 새로운 내용이 부가되고 각색되면서 무후에 대한 많은 왜곡을 만들어 내었다. 예를 들어, 12세기 필기류인 《唐詩紀事》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였고 오언절구로 된 조서 한편을 추가하였다. 《사물기원》과 《당시기사》가 편찬된 시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당시기사》를 보면 무후에 대한 묘사는 이미 확연히 달라져 있다

천수 2년(691) 12월 승상이 거짓으로 꽃이 피었다고 하여 무후가 上苑을 방문하게 하려고 하였다. [암살]을 모의한 것이다. 무후는 가겠다고 하였지만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깊이 의심하였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내일 아침 上苑(洛陽의 西苑)을 방문할 것이다.
황급히 봄에게 알리노니,
밤을 새워서라도 꽃을 피워야 할 것이며
새벽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때 새벽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들이 화원에 펼쳐지고 군신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탄복하였다. 무후는 술수를 써서 당조의 길운을 없애려 한 것이니 모두 요

9) 高承(약 1080 활동), 《事物紀原》(臺北: 商務印書館, 1982), 권10 31ab.

망하며 믿을 수 없다.¹⁰⁾

天授二年臘，卿相欲詐稱花發，請幸上苑，有所謀也。許之，尋疑有異圖，乃遣使宣詔曰：「明朝遊上苑，火急報春知。花須連夜發，莫待曉風吹。」於是凌晨，名花布苑，羣臣咸服其異。后託術以移唐祚，此皆妖妄，不足信也。

《사물기원》에서 무후는 고종의 목인 하에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정식 황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산책하는 장소는 여성들의 공간인 후원으로 되어 있다. 《당시기사》에서 시간적 배경은 무후가 낙양으로 천도하여 주나라를 세운지 1년이 되는 691년으로 되어 있다. 사건의 무대도 上苑이라는 하는 황제가 거니는 거대한 원림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있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통하여 꽃이 피는 이변이 더욱 대단한 장면으로 연출되고 무후는 명실상부한 제국의 최고 통치자로서 자연현상까지 간섭하는 초인적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사물기원》에서 겨울철에 꽃이 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란이 늦게 피어서 폼적 당했다는 말을 미루어 볼 때 무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무후가 명령을 내렸다는 언급은 없다. 반면, 《당시기사》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꽃을 피우라는 내용의 조서가 기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서 등장한다. 내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전 고사에서는 모란이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낙양으로 유배되었는데 여기서는 모란으로 여겨지는 名花가 무후의 명령이 두려워서 안간힘을 써서 하룻밤 사이에 꽃을 피워낸다. 이러한 각색을 통하여 무후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당시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암살 모의가 추가되어 정치적 색채가 입혀진 것이다. 최고 권력자들의 걱정거리는 모반이다. 무후는 전례가 없었던 여성 군주인데다가 친아들이었던 예종을 폐위시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군

10) 計有功(1121-1161 활동), 王仲鏞 편, 《唐詩紀事校箋》(成都: 巴蜀書店, 1989), 권3 44-5쪽. 유사한 이야기가 樂史(930-1007), 《廣卓異記》에 실려있다. 朱易安 편, 《全宋筆記》(鄭州: 大象出版社, 2003), 제1권 권2 21쪽.

주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삼아 반란이 일어날 것을 항상 염려하였다. 작품에서 무후가 암살자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반란을 대비하는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 가지 문제는 자신의 생각이 직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미리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후는 겨울에 꽃이 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 주어서 주모자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압도해 버린다. 이 이야기를 수록한 계유공은 믿을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무후의 괴이한 능력은 인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¹¹⁾

무후의 고사가 가장 과격적으로 변용되는 작품은 《如意君傳》이다.¹²⁾ 작품은 무후와 관계를 가진 남자들의 운명을 열거하면서 시작한다. 승려로 행세한 懷義는 오만한 행동으로 무후에게 살해되고 어의 沈南璆는 과도한 방사로 죽는다. 이어서 등장한 장창충, 장이지 형제는 뛰어난 용모로 무후의 사랑을 받으면서 각각 육랑, 오랑으로 불리며 관직을 제수 받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연절구로 된 무후의 조서가 등장하고 이어서 장창충을 꽃에 비유한 시와 전설적인 도교 인물인 王子晉의 후신이라고 한 시 두 편이 추가된다. 두 시 모두 장창충의 외모를 찬미하는 내용이며 여기서는 첫 번째 시를 소개한다.

朝罷金輪出正陽	조회가 끝나고 태양이 정양문에서 떠오를 제,
詔書火急報春光	조서가 화급히 봄날의 경치를 명령하네.
花中謾有千紅紫	붉은 빛, 보라 빛, 온갖 꽃들이 가득하지만
不及蓮花似六郎	연꽃을 닮은 육랑에는 미치지 못하지. ¹³⁾

金輪은 태양을 비유하는 말이지만 측천무후 칭호의 일부이기도 하다.¹⁴⁾

11) Jeongsoo Shin, 2011, 145-7.
 12) 일반적으로 신원미상의 문인 徐昌齡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톤(Charles R. Stone, 2003, 57-74)은 명대의 문인 黃訓(1490-약1540)의 저작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스톤은 《여의군전》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원문을 교감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본 논문에서 《여의군전》을 인용할 때는 이를 저본으로 한다.
 13) 《구당서》, 권9 2919쪽. 楊再思가 장창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육랑이 연꽃을 닮았다고 하지만 틀린 말이다. 연꽃이 육랑을 닮은 것이다.” 人言六郎似蓮花, 非也; 正謂蓮花似六郎.”

단어의 중의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고 범접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축천무후가 조회를 마치고 정양문을 나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각색 과정에서 암살을 미연에 방지하여 반대 세력을 압도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에 무후는 남자 시종과 함께 향락을 쫓는 방탕한 군주로 바뀐다. 전체 줄거리에서는 송대 고사와 큰 차이는 없지만 무후가 남자 시종들을 대동하는 장면이 추가되면서 무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자연의 법칙마저 무너트리는 혼음무도한 군주로 묘사된다. 주변서사가 바뀌면서 전체 서사의 주제가 바뀌는 것이다. 《당시기사》에서 정적을 압도하기 위하여 개화시기를 앞당긴 것과 비교할 때 《여의군전》의 설정은 훨씬 악의에 차 있다.

3. 남근으로 무후를 길들이기: 욕망과 계몽의 변증

《여의군전》에서 축천무후는 여러 남자를 거친 끝에 장씨 형제에게 만족하게 되지만 두 형제가 나이 많은 무후에게 싫증을 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장씨 형제가 당직이 끝나고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무후가 다시 불만에

14) 무후는 674년에 天后라고 하였다. 天은 황제에만 사용되는 문자이며 천후는 이전에는 없던 칭호이다. 688년에 聖母神皇라고 하였고 695년에 불교와 유교의 성군을 합쳐서 慈氏越古金輪聖神皇帝라고 하였다. 무후는 불교의 이상적 군주인 轉輪聖王(Cakravartin)의 최고 단계인 金輪王과 동일시하고 《大雲經》에 의거해서 자신의 통치가 예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스크리트어 Cakravartin(Pali, cakkavatti)은 온 세계를 인자하게 통치하는 이상 군주이다. cakra는 '바퀴', vartin은 '돌리는 사람'이다. 풀이하면,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또는 바퀴를 전차로 생각하여 자유롭게 전차를 움직이는 전능한 군주를 뜻한다(Stanley Tambiah, 1987, 1-3). 《大雲經》은 도교적 색채가 혼합된 불경이다. 여기에는 무후의 통치를 예견하는 신비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 684년 회주의 황하에서 갑자기 오색 구름이 일어났다. 구름 속에서 玄女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하늘이 구전신단을 보내어 황태후에게 바치게 하였다.” 又文明年內，懷州於黃河中忽有五色雲起，雲上有人，自稱玄女云：天使送九轉神丹進皇太后. 이 내용은 이제까지 조작된 것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포르테(Antonino Forte, 1976)가 그렇지 않음을 밝혀냈다.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많아서 장씨 형제에게 무시당하였다는 기록은 물론 없으며 무후를 폄하하는 시선이 들어간 문학적 창작이다. 무후가 태종의 재인으로 입궁하였을 때 아들인 고종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설정은 무후의 과거사에 대한 징벌로 읽을 수 있다.

장씨 형제에 대한 무후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남자 주인공 설오조이다. 설오조는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다. 등장인물이 모두 실존 인물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설오조만 예외적으로 허구적 인물이다. 유달리 큰 남근을 가지고 있었다는 신체적 특징이 바로 설오조라는 인물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점으로 작품의 제목이자 설오조의 존칭인 如意君처럼 칠순이 넘어서도 원기가 왕성한 무후의 ‘뜻(如)에 맞는(意) 남자(君)’가 된다.

설오조가 기존의 남자 시종과 다른 점은 남자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선비로서의 덕목까지 갖추었다는 점이다. 男妃로서 무후를 모시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본인 자신은 어떠한 쾌락도 즐기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남비들을 질투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자신의 성 능력을 이용하여 당 황실의 적통을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설오조는 자신을 거세하겠다고 위협하여 무후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노릉으로 추방된 황태자 李顯을 황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설오조가 말하였다. “신이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한 때의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폐하께서는 만세의 어린 아이가 있으니 바로 폐하의 친자식입니다. 어떻게 차마 골육을 버리십니까?” 이 말을 듣고 무후는 감동하였다. 오조는 이때부터 매번 권면하였고 나중에 적인결과 같다는 말까지 들었다. [무후는] 여릉왕을 불러서 다시 황태자로 삼았다. 황궁의 안팎에서 모두 설오조가 궁궐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면서 틈을 보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당 황실에 내조하였다는 말을 듣고 덕이 있다고 칭찬하였다.¹⁵⁾

敖曹曰：“臣之爲兒，片時兒耳。陛下自有萬歲兒，係陛下親骨肉，何忍棄之？”後心動。敖曹自是時每以爲勸，後得狄梁公言，召廬陵王，復爲皇太嗣。中外謂曹久穢宮

15) 《여의군전》 20a.

掖，咸欲乘間殺之。及聞內助于唐，反德之矣。

인용문에서 설오조는 당대의 명재상 적인결과 같다는 말까지 듣는다.¹⁶⁾ 이를 고려하면, 설오조라는 인물은 건장한 신체를 타고 났으면서 문인의 덕목까지 갖춘 셈이다. 이와 같은 남비의 몸과 선비의 정신이라는 기묘한 조합은 '성욕'을 매개로 하는 방법론과 '정통성'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아무리 명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베개머리 송사의 남성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후가 설오조에게 계도되는 과정은 후대 문인들이 여성 군주를 부정하는 심리와 복수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남성 문인들의 자기 모순적인 파행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설오조는 호학을 호색처럼 하는 공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남근을 사용하여 무후를 굴복시켰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 해결은 기존의 보수 권력으로서의 회귀일 뿐이며 선악이나 윤리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¹⁷⁾

<控學監秘記二則>은 무후의 의전을 관장하며 연회를 주관한 공학감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¹⁸⁾ 첫 번째 고사는 무후와 장창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고사는 上官婉兒(664-710)와 崔湜(671-713)의 애정사를 소재로 한다. 두 고사는 서로 연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내용이다.

첫 번째 고사에서 무후는 남자 시종 薛懷義가 낮은 신분 때문에 대신들에게

16) 실제로 적인결은 장창종에게 노릉왕의 복권을 주장하였는데 작가는 이를 어느 정도 의식하여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신당서》, 권115 4211-4212쪽 참조.

17) 라캉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설오조는 상상계에 속한 무후를 가부장제라는 상징계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대문자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라캉의 팔루스가 보이지 않는 권위를 통하여 유아를 상상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반면에 설오조는 남근의 거세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18) 원매는 《자불어》에 수록하면서 무후의 집권 당시 유명한 문장이었던 張說(667-730)의 차남 張珣가 현종의 사위가 되었을 때 부친에게서 들은 무후의 사생활을 들은 대로 기록한 작품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원매가 세인의 비난을 피하고자 張珣가 지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는 원매의 작품으로 본다.

무시당하는 것을 고민하던 차에 친딸 千金公主에게서 장창종이라는 새로운 남자를 소개 받는다. 장창종은 외모가 수려하고 남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에 학식까지 갖추어서 모든 면에서 무후를 만족시킨다. 장창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의 신체가 여성들의 은밀한 관찰 속에서 대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창종의 소개를 받은 뒤에 자신이 경험한 남자들을 평가하는 무후의 생각을 들어보자.

좋은 남근이란 아름답고 충만하고 부드럽고 조화로워야 한다. 노복 懷義는 힘줄이 근육보다 지나쳐서 정사 중에 광폭하다. 당시에는 흠족하지만 지나고 나면 짐의 몸에 조화로움이 깨져있음을 느낀다. 어의 沈南璆의 물건은 [懷義에 비해] 근육은 조금 낮지만, 위와 아래의 굵기가 같아서 귀두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긴 두피가 덮고 있어서 서지 않을 때에는 가려져 있어 불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제 경의 말을 들어보니 창종은 완전하도다.¹⁹⁾

男陰佳處，全在美滿柔和。懷義老奴，筋勝於肉，徒事慙猛，當時雖愜，過後朕體覺違和。御醫沈南璆肉差勝，然上下如一，頭角蒙混。且皮弛，稍稍褻褻，非翹起不脫，故時覺不淨。如卿所云，乃全才也。

남근은 아름답고 충만하고 부드럽고 조화로워야 한다(美滿柔和)는 무후의 생각은 여성적인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무후는 많은 남성들을 폄평하면서 강한 남성보다 부드럽게 만족시켜주는 남자를 선호한다. 여기서 무후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남총은 무후의 권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무후의 폄평 역시 남성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길들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의 몸에 대하여 여자들이 관찰하고 대화하는 장면은 위의 인용문 외에도 천금공주가 창종을 엿보는 대목, 그녀의 여종이 시험하는 장면 등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19) 王英志 撰, 《袁枚全集》, 권24 488쪽.

20) 상동. 이러한 궁중 여인들의 남근 폄평에 대하여, 프랜시스(Francis, 2002, 154)는 한편의 서화가 문인들 사이에서 감상, 복사, 회람되는 것과 비교한다. 여인들의 폄평과 소유욕은 서화수집가가 좋은 작품을 소장하려는 욕망과 같으며 이러한 태도는 종래에 남녀관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주체성(female subjectivity)이 부각된다. 명대에 유행한 서화 감상과 연관시키면서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한 프랜시스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완전

무후의 행동을 주체적인 여성으로 보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남근에 탐닉하는 무후의 모습은 병적 집착으로 자신의 욕망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무후의 과도한 집착은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무후의 집권 말기에 반란군이 봉기하여 공학감에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장씨 형제를 처형하고 떠나자 그동안 이들의 전횡에 격분하였던 백성들이 두 형제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이후에 上官婉兒(664-710)가 이들의 잔해 속에서 간신히 음경 반 조각을 찾아서 무후에게 보여드린다. 이 때 무후는 울먹이며 “이것은 창종의 것이야. 형 이지의 것은 이럴 수가 없어.”(是六郎也, 契苾兒不能如是.)라고 말하며 第一府의 白玉盒에 보관하다가 죽을 때 자신과 함께 묻으라고 한다.²¹⁾ 살아서 무후의 성노리개였던 창종은 죽어서 귀중품으로 대접받는다. 창종의 잔해는 무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함 속에서 최고의 보물처럼 보관된다. 이러한 무후의 남근 숭배는 한 개인의 성적 집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고대 사회에서 다산을 기원하며 유행하였던 집단적 남근숭배와 다르다.

<공학감비기이칙>의 두 번째 고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상관완아의 흉터에 대한 문학적 각색이다. 역사서에서 상관완아의 이마에 있는 흉터는 부친 상관의가 중종에게 무후를 폐위시키라는 상소에 동참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되어 있다. 사형 죄에 해당하지만 완아의 문학적 재능을 아껴서 죽이지는 않았다고 한다.²²⁾ 그러나 작품에서 상관완아는 창종에게 눈독을 들이다가 무후의 노여움을 사서 생긴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

사건은 무후가 장창종을 위하여 峽石에 호화로운 정원을 지어주는 것으로

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작품에서 여인들이 사적인 대화를 은밀하게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예술 작품을 논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또 남근이라는 대상에 대한 의견이 개인적 경험에 머무르고 있어서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는 서화 감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는 힘들다. 굳이 서화 감상의 단계에서 말하자면, 여성들의 남성 품평은 직관에 바탕을 둔 인상 비평이며 이는 서화 품평에서 낮은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1) 앞의 책, 권24 489쪽.

22) Kang-i Sun Chang, 앞의 책, 49쪽.

시작한다. 밀회를 가질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무후는 완아를 대동하고 다니며 심지어 창종과의 정사까지 보도록 허락한다. 완아 역시 이러한 시간에서 묘한 흥분을 느끼다가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창종의 몸에 손을 대고 만다.

무후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게 하는구나.” 완아는 마음이 동해서 치마 아래가 모두 젖었고 자신도 모르게 손이 창종에게 갔다. 이에 무후는 대노하여 금장도를 가지고 완아의 쪽진 머리에 꽂으며 말했다. “넘보지 말아야 할 것에 감히 손을 대다니, 죽어 마땅하다!” 육랑 장창종이 애걸하여 죽음은 면하였지만 완아의 이마에는 상흔이 생겼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흉터를 감추기 위하여] 항상 꽃 장식을 머리에 얹었다.²³⁾

后歎曰“使人之意也消。”婉兒心動，裙下皆濕，不覺手近昌宗。后大怒，取金刀插其髻，曰：“汝敢近禁鬻，罪當死！”六郎爲哀求，始免。然額有傷痕，故於宮中常戴花鈿也。

완아는 본래 의식적으로 창종과 거리를 두었으나 순간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죽을죄를 범하게 된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황제가 먹는 고기(禁鬻)에 손을 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무후에게 애걸하여 완아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창종인 것을 보면 창종 역시 마음속에 완아를 두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창종의 도움으로 목숨은 구했지만 완아의 이마에 칼자국은 남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본래 역사에서 무후의 전횡을 막으려다가 생긴 완아의 상처가 소설에서는 무후의 성관계에 연루되면서 생긴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 겨울철에 꽃 피게 하는 고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내용이 성적 소유욕으로 바뀌면서 완아 역시 무후와 같은 음탕한 여자로 형상화 된다.

본 장을 요약하면, 《여의군전》에서 설오조의 남근은 무후에게 아들을 복위시키라는 윤리적 명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후라는 여자를 가부장제라는 상징계에 길들이는 팔루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학감비기이칙》에서 여성들이 남녀 관계에서 보여주는 주도적인 면은 여성의 주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남근에 집착하는 무후의 모습은 남근이라는 또

23) 앞의 책, 권24 489쪽.

다른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욕망으로의 종속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줄 뿐이다. 욕망은 자신의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과 교류하고 제삼자를 의식하면서 이루어지는 한, 사회적이며 타자의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명칭 소설에서 재현된 무후의 남성편력은 일견 남성들을 성적으로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여전히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여근으로 남자를 길들이기: 선덕여왕의 여근곡 고사와 비교

수이코황제推古天皇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등극하였지만,²⁴⁾ 재위 36년간 성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여성이라는 사실이 특이하거나 거슬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설화나 문학 작품 역시 전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여성 통치에 대한 특별한 반감이 없었던 데에는 일본 고유의 신화적, 문화적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화에는 여신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오빠 이자나기伊耶那岐와 함께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는 이자나미伊耶那美, 그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을 낳은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天照, 출산마저 미루고 남장한 채로 신라를 정벌하였다는 진구神功 등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여성이다. 이자나미는 오빠에게 종속적인 신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나머지 두 여신은 상당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강한 여신이다. 히미코, 진구의 전쟁 무용담 역시 여제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24) 《일본서기》, 권22 378쪽. 推古天皇은 29대 欽明天皇의 차녀이며 18세(576년)에 30대 敏達天皇의 황후가 되었다. 39세 때 당시 권력가였던 蘇我馬子が 32대 崇峻天皇을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 번 고사를 하였지만 군신들이 간청으로 33대 천황으로 옹립하였다.

일본에는 신화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여왕들도 존재했다고 여겨져 왔다. 야마타이邪馬臺 지역의 부족국가들을 다스렸다는 히미코卑彌乎, 22대 飯豊女王(재위 462-475) 등 일본에서는 이미 여제들이 존재했었다고 믿어져 왔다. 이들은 중국 역사서 《삼국지》, 신화적 내용이 많은 《고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실존 여부가 의심받고 있으며 실재하였다고 해도 정식 군주였다고보다 제정일치 시대에 활동하였던 영향력 있는 사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존재민음은 진실효과(truth-effect)로 작동해서 일본인들은 상고시대부터 여제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따라서 수이코 황제의 통치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聖德太子의 업적이 부각되면서 여황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덕태자에 관한 일화는 많지만,²⁶⁾ 수이코천황은 죽기 5일전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 외에 기이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사실은 두 사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²⁷⁾

선덕여왕에 관한 기록은 측천무후보다는 적지만 수이코황제보다는 훨씬 많다. 여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知機三事 고사 외에 志鬼 설화, 刹利種王 일화 등이 알려져 있다.²⁸⁾ 이 중에서 권력과 성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여근곡 고사이다.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자.

음력 오월 여름 개구리들이 궁의 서쪽 옥문지에서 몰려들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좌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들의 성난 눈동자는 병사의 형상이

25) 小林敏男(1989)은 고대 여황제들을 삼분하면서 수이코 이전을 무너 즉 사면적 존재로 보았고 수이코부터 지토까지를 무너왕에서 여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았으며 겐메이부터 본격적인 여제였다고 본다.

26) 《일본서기》, 권22 378-9쪽. 쇼토쿠 태자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했고 장년이 되어서 10인의 송사를 듣고 한 번에 처리했다는 비범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27) 《일본서기》, 권22 402쪽.

28) 《삼국사기》, 제1권, 권5 59쪽. 성은 金, 이름은 德曼이다. 眞平王(재위 579-632)과 摩耶夫人 사이에 장녀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寬仁明敏하다는 평을 받았다. 진평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사후 國人들의 추대로 27대 왕으로 즉위하여 聖祖皇姑라는 칭호를 얻는다.

다. 내가 듣건 데 서남쪽에도 옥문곡이라는 지명이 있다. 혹시 적국의 병사들이 그 안에 잠입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내 장군 알천과 필담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색하게 하였다. 과연 백제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습격하려고 정예병사 오백 명을 데리고 매복 중이었다. 알천이 기습하여 모두 사살하였다.²⁹⁾

夏五月，蝦蟆大集宮西玉門池。王聞之，謂左右曰：“蝦蟆怒目，兵士之相也。吾嘗聞西南邊亦有地名玉門谷者，意或有隣國兵，潛入其中乎。”乃命將軍闕川弼吞率兵，往搜之。果百濟將軍于召，欲襲獨山城，率甲士五百人，來伏其處。闕川掩擊盡殺之。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고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내용을 수정하여 선덕여왕의 비범한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겨울 영묘사 옥문지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삼사일간 울어대었다. 이상하게 여긴 국인들이 왕에게 보고 하였다. 왕은 알천, 필담 두 장수에게 급히 명하여 정예병사 이천 명을 이끌고 즉시 서쪽 근교로 가서 女根谷을 물어보면 그 곳에 반드시 적군이 있을 것이니 모두 사살하라고 하였다. 명을 받은 두 장군은 각각 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 근교로 가니 과연 富山 아래에 여군곡이 있었고 백제 군사 오백 명이 매복 중이어서 모두 처치하였다. 백제 장군 우소가 南山嶺 돌 위에 숨어 있다가 다시 포위당하여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후에 다시 적군 천이백 명이 쳐들어 왔는데 섬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³⁰⁾

於靈廟寺玉門池，冬月衆蛙集鳴三四日。國人怪之，問於王。王急命角干闕川弼吞等，鍊精兵二千人，速去西郊，問女根谷，必有賊兵，掩取殺之。二角干既受命，各率千人問西郊，富山下果有女根谷，百濟兵五百人來藏於彼，竝取殺之。百濟將軍于召者，藏於南山嶺石上，又圍而射之殪。又有後兵一千二百人來，亦擊而殺之，一無子遺。

《삼국사기》와 비교할 때, 줄거리 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서 선덕여왕의 비범한 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간적 배경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개구리 울음소리는 여름철의 평범한 자연현상에서 특이한 사건이 되고 향후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날 조짐을 보여준

29) 《삼국사기》，제1권，권5 60쪽，선덕여왕 5년. Cf. 《삼국사기》 제1권 권27 259쪽，무왕(재위 600-641) 37년.

30) 《삼국유사》，권2 141쪽 #33 선덕여왕조 지기삼사.

다. 개구리가 울었다는 장소는 《삼국사기》에서는 궁의 서쪽이라고만 하고 있는 데 《삼국유사》에서는 선덕여왕이 창건하였다는 영묘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영묘사를 선덕여왕의 분신으로 이해한다면,³¹⁾ 영묘사의 옥문지는 자연스럽게 여왕의 자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성은 적군이 매복한 지역의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김부식은 영묘사의 옥문지를 연상시키는 옥문곡이라고 하였는데 일연은 여근곡이라고 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궁과 관련시키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의 말 역시 단호해 졌다. 《삼국사기》에서는 여왕의 말이 “意惑 …… 乎”라는 의문문으로 되어서 추측성 발언으로 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必자를 사용하여 확신에 찬 어조로 되어 있으며 급습하여 죽이라는 명령까지 부가되어 있다.(必有賊兵 掩取殺之) 더욱 놀라운 점은 선덕여왕이 적군의 침입을 성관계, 즉 남성의 여성 지역에 대한 침범으로 해석하여 백제 병사의 필패를 확신한 것이다.

“개구리의 노한 형상은 병사의 모습이다. 옥문은 여근이다. 여자는 음에 해당하며 색깔은 백색이며 백색은 서방을 뜻한다. 고로 적군들이 서쪽에 있을 줄 알았다.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은 필연이다. 이것으로 쉽게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때 모든 군신들이 왕의 성스러운 지혜에 감복하였다.³²⁾

“蛙有怒形, 兵士之像. 玉門者, 女根也. 女爲陰也, 其色白, 白西方也. 故知兵在西方. 男根入於女根 則必死矣. 以是知其易捉.” 於是群臣皆服其聖智.

여성을 계곡에 비유하는 발상이 선덕여왕의 고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념은 동아시아 문화에 자주 나타나며 이미 《노자》에서 나타

31) 영묘사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권1, “善德王知機三事條”에 “선덕왕이 영묘사를 창건하였다.”(善德之創靈廟寺)라고 하여 정확한 창건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삼국유사》 권3, “阿道基羅條”에 “(영묘사는) 선덕왕이 을미년(635)에 처음 열었다.”(善德王乙未開始)라고 하였고 《삼국사기》 권5, 선덕왕 4년(635)에 “영묘사가 완성되었다.”(靈廟寺成)라는 기록으로 보아 635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佛宇條”에는 貞觀五年(632년)에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2) 상동

난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물이 샘솟는 계곡이 '신묘한 여성'으로 불리면서 여성은 천지를 양육하는 근본으로 여겨진다.³³⁾ 여성성에 대한 예찬은 《노자》 61장에서도 보인다.³⁴⁾ 여성적 특성과 미덕을 예찬하는 도가적 세계관은 남성성을 지향하는 동중서의 음양론이나 서양 철학의 전통과 대조적이다.³⁵⁾

선덕여왕과 노자 모두 계곡의 비유를 들어서 여성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발상은 전혀 다르다. 만물을 잉태시키는 자궁의 근원적 생명력에 주안을 둔 노자의 아포리즘은 동서고금에서 두루 발견되는 모성애적 특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여근에 침입한 남근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군은 몰살할 것이라는 선덕여왕의 예견은 과격하고 새로운 발상이다. 여근곡 고사는 자연의 변화에 기민하고 지리와 지형을 잘 이해하는 선덕여왕의 총명함을 보여주는 고사로 이해되어 왔지만 남녀 관계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선덕여왕은 여성의 지구력을 높이 평가하며 남녀 관계에서 피동적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의 입장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러한 발상은 필자가 아는 한 적어도 동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서양에서 '이빨이 달린 생식기'(vagina dentata)라는 환상적인 관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³⁶⁾

선덕여왕은 일차적으로는 침입한 적군을 대상으로 한 말이지만 이 말을 목

33)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홍콩: 중화서국, 1987), 권6 85-6쪽. "계곡의 신은 죽지 않으며 '신묘한 여성'〔玄牝〕이라고 한다. 현빈의 문은 천지의 근원이라고 한다. 면면히 이어져서 아무리 사용하여도 지치지 않는다."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動.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은 만물을 적시며 생명을 잉태하고 생장시키기 때문에 계곡의 신 玄牝은 천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牝은 여성을 의미하며 '어두움'과 '깊음'의 이미지를 가진 玄 역시 자궁의 이미지에 부합한다.

34) 앞의 책, 권61 301쪽. "큰 나라는 아래로 흐르는 물 같아야 한다. 가장 여성적인 곳에서 천하가 소통한다. 여성은 항상 고요함으로 남성을 이기며 고요함으로 아래에 거한다." 大邦者下流, 天下之牝, 天下之交也. 牝常以靜勝牡, 以靜爲下.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며 물줄기들이 하류에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자연스러움, 겸손함, 포용성 등과 같은 여성적인 특징이 남성적인 강인함을 이긴다는 것이다.

35) 이리가레이에 따르면, 서구사상은 남성, 태양, 빛을 지식과 진리로 보고 여성, 땅, 어두움을 무지로 연결시키면서 남성중심주의를 지향해 왔다. Luce Irigaray, trans. G. G. Gill, *Spectrum of the Other Wome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36) '이빨 달린 자궁'은 낯선 여성과 관계를 선망하는 남성을 경고하는 이야기(cautionary tale)로 읽힌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지 않는 남성의 침입을 격퇴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여왕궁에 침입한 백제 병사를 물리치려는 선덕여왕의 입장과 상통한다.

전에서 듣고 있는 신라의 지배층 남성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심연에 들어온 이상 죽을 수밖에 없는 백제 군사처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라의 남성 귀족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여왕은 행간에서 말한다.

3. 결론을 대신하여: 7세기 동아시아의 여성 군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과 관련된 측천무후의 형상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왜곡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송대 역사서에서 ‘황실을 문란하게 하였다’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된 반면에 명청 소설에는 무후의 남성편력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다. 무후가 쾌락에 집착한 나머지 남자 시종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상에 오른 무후의 대담하고 치밀한 성격을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묘사는 무후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남성 문인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여의군전》과 <공학감비기>에서 잘 나타난다.

두 소설은 양명학의 영향으로 유행한 개인주의와 욕망을 긍정하는 사상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자와 향유계층이 남성 지식인들로서 성에 관한 무의식적 우월감을 보여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의군전》에서 설오조는 스스로 자신을 거세하겠다고 위협하여 무후가 친아들 이현을 다시 황사로 세우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세운다. 남성이 성 능력으로 여성을 계도한다는 구도는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거나 저평가하는 남근이성주의(phallogocentrism)의 산물이며 최근에 유행하는 하는 용어인 맨스플레인(mansplain)의 일종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공학감비기>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부분은 무후가 창종의 잔해를 보고 오열하는 장면으로 무후의 과도한 집착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군주의 여성 편력은 육체적 쾌락 차원을

넘어서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수많은 여성이 입궁하지만 군주의 '은혜'를 입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 궁녀들은 철저히 통제된다. 이러한 현실은 궁녀들이 일차적으로 군주를 모시기 위하여 입궐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군주의 절대권력, 나아가 왕조의 번영을 보여주는 데에 이들의 존재의의가 있다.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는 군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비범한 인물이 만민을 통치하는 것은 정당하게 받아들여진다. 도교의 방중술 역시 군주의 여성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많은 군주들이 양생술을 신봉하면서 젊은 여성의 음기로 자신들의 노잔한 양기를 보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말하자면, 군주에 있어서 성은 권력의 전사이면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한 도구인 것이다.

후대 문인들이 무후의 남성편력을 매도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는 무후 뿐만 아니라 전근대 시대의 군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무후는 성을 권력화하여 통치술에 활용한 것이다. 많은 남자 시종을 거느려서 남자 신하들이 위압감을 느끼게 하며 일반 사람들은 무후가 통치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무후의 방중술은 신성성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의심방》에 인용된 《玉房秘訣》에 따르면, 서왕모는 젊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불노불사를 이루었다고 한다. 무후는 서왕모 신화를 자신의 성생활에 적용하면서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 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자신의 위치를 도교 여성신인 西王母에게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였다.³⁷⁾

다음으로 측천무후의 형상을 동시대에 활동한 한국과 일본의 여성군주와 비교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수이코천황은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군주였지만 동아시아는 물론 일본 역사에서조차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관련 기록은 소략하고 여성군주에 대한 반감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즉위과정이나 재위과정 중에 여성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일본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여신들과 전설적인 여자황제에 대한 존재민음이 작용해

37) 이와 관련하여 로셀드(Norman Harry Rothschild, 2010, 29-56)의 논문을 볼 것.

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쇼토쿠태자의 섭정으로 수이코천황이 덜 부각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선덕여왕은 즉위 직전과 말년에 반란 세력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부정적인 기술이 나타난다.³⁸⁾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덕여왕은 성골 출신이었고 국민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측천무후는 일본이나 한국의 여성군주보다 늦게 출현하였지만 후대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주로 인신공격과 같은 부정적 반응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반감의 원인으로 여성이라는 점 이외에 상인 계층이라는 낮은 신분, 정상적이지 못한 왕위 계승 등을 꼽을 수 있다.

성과 권력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세 명의 여성 군주는 유사한 모습은 보여준다. 수이코천황은 성과 관련된 역사기록이나 설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에 대한 관련 기록의 부재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선덕여왕은 성과 관련된 설화가 여근곡 고사 한 편밖에 없지만 기존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전복시키는 독특한 내용이다. 측천무후는 성과 관련된 고사가 유난히 많은데 남자 시종과 문란한 관계, 과도한 집착 등이 주내용이다.

선덕여왕은 여성의 우월함과 주도적인 면을 부각시킨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덕여왕은 여근 안에서 남근의 운명을 비유로 들면서 여왕이 보낸 병사의 승리를 예견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강한 존재이며 이는 다시 여성 자체의 근본적인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무후는 이야기의 초반에는 남자 시종들을 압도하는 면을 보여주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남자 시종들에게 끌려 다니는 내용으로 끝난다. 무후의 남성편력을 소재로 한 고사들은 무후가 남성 중심적인

38) 《삼국사기》, 권5, 十二年(643) 春正月.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서 이웃 국가들의 업신여김을 받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서 도둑들을 불러들이니 편안할 때가 없다.”(爾國以婦人爲主, 爲鄰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유사한 내용이 《구당서》 제6책, 권 199A 5335쪽에 실려 있다; 《삼국사기》, 권5, 十六年(647) 春正月. “비담, 염종 등이 여왕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毗曇廉宗等謂女主不能善理, 因謀叛擧兵.)

가부장적 사회를 정복했지만 후대 문인들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여성군주의 상이한 내용의 이야기는 선덕여왕과 측천무후의 성격과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신라와 당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³⁹⁾

신라 시대 남성과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편이었다. 비명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으며, 발굴된 묘를 조사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놓여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보여준다.⁴⁰⁾ 또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 때에 유행한 仙桃山의 神母의 설화처럼, 산신령이 남성으로 생각되는 오늘날의 관념과 달리 당시 산신은 상당수가 여성이었다.⁴¹⁾ 이밖에도 여성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花郎徒의 수장 源花가 본래 여인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여성이 인정받고 여신이 모셔지는 배경 속에서 여성이 우월하다는 선덕여왕의 발상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 단지 이러한 이야기가 단편적인 설화로 머물고 후대에 문학 작품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후대 문인들의 편견과 무관심 때문으로 보인다.

측천무후의 시대는 가부장적 유교 사회가 확립된 시대였다. 선진유학은 본래 수평적 인간관계를 추구했지만,⁴²⁾ 동중서와 같은 한대 유학자들이 三綱五倫과 같은 정치·도덕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孔穎達(574-648)이 642년에 《五經正義》를 편찬하면서 서열 중심의 가부장적 윤리는 더욱 공고해진다.⁴³⁾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가부장적 제도는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39) 모란꽃을 대하는 두 여성군주의 상이한 태도와 그 의미에 관하여, 신정수(2012, 101-122)의 논문을 볼 것.

40) 당시 젠더와 신분구조의 관련 양상에 대해서 넬슨(S. M. Nelson, 1993, 297-315)의 논문을 볼 것.

41) 《삼국유사》 권7 #1, 603-4쪽. 신라시대 여섯 명의 여성 산신령이 모셔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레이슨(James H. Grayson, 1996, 122-4)의 논문을 볼 것.

42) 《論語》, 권12 11/1. 齊景公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臣臣, 父父子子.

43) Tu Wei-ming, "Probing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in *Confucianism and the Family*, eds., Walter H. Slote and George A. De Vo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8), 122. 공영달의 사상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주석이 후대의 보수적 유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면서 가부장적 윤리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라도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후는 신분 사회라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앉아서 남성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 參考文獻 >

- 《舊唐書》 《新唐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老子》 《日本書紀》
 高承(약 1080 활동). 《事物紀原》(臺北: 商務印書館, 1982).
 計有功(1121-1161 활동). 王仲鏞 編, 《唐詩紀事校箋》(成都: 巴蜀書店, 1989).
 朱易安 編. 《全宋筆記》(鄭州: 大象出版社, 2003).
 王英志 編. 《袁枚全集》(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7).
 도야마 군지(外山軍治). 박정임 역. 《측천무후》(페이퍼로드, 2006).
 서창령 저. 편집부 역. 《측천무후 여의군전》(서울: 범우사, 2009년).
 신정수. <모란의 중국 표상 모란의 중국 표상: 고대 동아시아의 모란 문학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0 (2012): 101-122.
 Chang, Kang-i Sun and Saussy, Haun, Ed. *Women Writers of Traditional China: An Anthology of Poetry and Critic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Doran, Rebecca Esther. *Transgressive Typologie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Forte, Antonino. *Political Propaganda and Ideology in China at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Napoli: I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1976.
 Francis, Sing-chen Lydia. "What Confucius Wouldn't Talk About": The Grotesque Body and Literati Identities in Yuan Mei's "Zi buyu,"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24 (Dec., 2002): 129-160.
 Grayson, James H. "Female Mountain Spirits in Korea: A Neglected Tradition," *Asian Folklore Studies* 55:1 (1996): 122-4.
 Irigaray, Luce. Gill, G. G, trans. *Spectrum of the Other Women*(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Jay, Jennifer W. "Imagining Matriarchy: Kingdoms of Women in Tang China," *Journal of American Oriental Society* 116.2 (Apr.-Jun., 1996), 220-9.

- Nelson, S. M. "Gender Hierarchies and the Queens of Silla," *Sex and Gender Hierarchies*, ed. Barbara D. Mill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97-315.
- Rothschild, Norman Harry. "Empress Wu and the Queen Mother of the West," *Journal of Daoist Studies* 3 (2010): 29-56.
- Shin, Jeongsoo. "From Bewitching Beauty to Effete King: Transgendering of King Peony in Medieval Chinese and Korean Literatur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Stone, Charles R. *The Fountain Head of Chinese Erotic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 Tambiah, Stanley J. *The Buddhist Conception of Universal King and its Manifestation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Kual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1987.
- Twitchett, Denis and Fairbank, John 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Tu Wei-ming. "Probing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in *Confucianism and the Family*, eds., Walter H. Slote and George A. De Vo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8).
- 小林敏男. 《古代女帝の時代》(東京: 青木書店, 1989).
- 新人物往來社 編. 《女帝の日本古代史 六人八代の女帝時代の謎》(東京: 新人物往來社, 2010).

< Abstract >

A Study of Literary Adaptations of Empress Wu's Sexual Relationships with Male Attendants: East Asian Comparative Perspective

www.kci.go.kr Shin, Jeong-soo

In pre-modern East Asia, power was equated exclusively with masculinity.

On account of this reasoning, it was considered an anomaly when a woman emerged as a ruler. The best known female ruler is Empress Wu (675-705; r. 690-705). Between the Song and Qing dynasties, male literati despised the Empress, highlighting her supposed promiscuous life in their writing. Through readings of selected adaptations of her life focusing on sexual bia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ome literati demonized her. In these works, I have analyzed their desire for revenge, their fear of the empress, and the phallogocentrism of their works. I have also broadened my perspective to explore the cases of Queen Seondeok (r. 632-647) and Empress Suiko (554-628; r. 592-628) in order to find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in the literary treatments of female rulers in East Asia. Queen Seondeok was portrayed positively to some extent, while Empress Suiko was rarely mentioned in terms of gender or sexuality. The different mis/representations of the three female rulers in their own countries are considered to come from the three women's different class and cultural backgrounds.

Key words: Empress Wu, Queen Seondeok, Empress Suiko, Ruyijun zhuan, Yuan Mei, gender, sexuality, power, adaptation, phallogocentris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8. 29.	2017. 09. 11.	2017. 09. 30.

